

기술분석보고서 경기관련 소비재

원익(032940)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병희 책임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6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원익(032940)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국내 유통 전문 기업

기업정보(2025.08.18 기준)

대표자	장홍식
설립일자	1983년 10월 31일
상장일자	1997년 07월 18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주요제품	의료기기, 화장품, 반도체 부품 등

시세정보(2025.08.18)

현재가(원)	6,08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106
발행주식수	18,193,230
52주 최고가(원)	10,370
52주 최저가(원)	2,915
외국인지분율	4.35%
주요주주	(유)호라이즌, 장홍 식, 양원용 외

■ 산업원자재 및 의료장비 유통과 HIC 전문 제조사

주식회사 원익(이하 ‘동사’)은 석영용기 제조를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되어, 1997년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의료기기, 산업용 원료 등의 유통을 하던 원익통상(주)과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하던 (주)위닉스와 차례로 합병하여 현재의 4가지 사업 부문(통상, 헬스케어, 전자부품, 기타)을 구축하였고,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씨엠에스랩과 음식숙박업의 (주)하늘물빛정원, 부동산임대업의 국제전자센터빌딩(유), 농업회사법인인 (주)장산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과 종속 기업을 통해 4개의 사업 부문에서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기업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헬스케어 부문은 인구고령화,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 국내외 시장에서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2023년 5.7억 달러에서 2029년 11.4억 달러로 6년간 두 배 가까이 시장규모의 확대가 전망되어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력 전자부품인 하이브리드 집적회로(HIC) 시장은 2023년 약 10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5%로, 2032년에는 약 16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매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생산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국내외 시장의 다변화 및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 기대

동사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내외 유통채널 확대와 로컬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MEMS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첨단 의료용, 산업용 주요 부품을 개발하여, 기존 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함께 신규 고성장 분야로의 기술 확장을 병행하여 종합소재·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1,080.9	14.2	74.1	6.9	383.1	35.4	16.3	11.1	47.7	2,102	13,943	1.9	0.3
2023	1,298.8	20.2	124.9	9.6	-13.8	-1.1	-0.7	-0.4	47.5	-95	13,789	N/A	0.3
2024	1,387.4	6.8	93.2	6.7	213.9	15.4	8.1	5.8	32.4	1,162	14,920	2.9	0.2

기업경쟁력

첨단 산업용 센서 제조 기술 보유

- MEM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용 디지털 센서 개발
- 다양한 소재 및 용도의 저압 및 고압용 센서 개발

계열사와의 유기적 운영

- 산업원자재 유통망 보유 및 계열사인 복합 소재 부품 전문기업 원익QnC와의 OEM 생산, 공동 개발 등을 통해 1차 가공 기술을 확보하여 가공 산업으로의 변화 모색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차세대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역량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다른 분야의 품목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
- 전자산업의 고도화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부품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기술 보유
- 기존 아날로그 대비 정밀도와 소형화에서 우위 확보하여 디지털 센서로 전환 주도

산업분야 별 시장요구 충족

- 고객에 맞춘 제품의 구성, 디자인, 코팅 가공 기술을 활용한 원자재 및 가공품
- 하이브리드 집적 가공 기술을 이용한 고성능 저압 센서 및 디지털 타입 압력센서
- 환부만 도려내는 홀랩 기술을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 등의 레이저 수술 장비
- 의료용 재생성분을 활용한 고기능성 섀커 제품 및 트러블이 적은 기초화장품

시장경쟁력

차별화된 제품 라인과 브랜드 보유

- 프리미엄 병·의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Cell fusion C'를 통한 차별적 신뢰 확보
- 진정/재생/보습의 기능성 기반과 마이크로바이옴 함유 등의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 기존 유럽 중심에서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확대로 글로벌 27개국 유통
- HIC 기반 고기능센서 전문화로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 장비 등에 공급

다변화 된 유통망

- 각종 국내외 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의료장비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학회, 대형병원, 검진센터를 통한 시장 공급 구조 구축 및 B2B 유통에서 벗어난 온라인 및 홈쇼핑과 면세점, H&B스토어와 같은 OFF-LINE 유통망 확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을 위한 친환경 고순도 쿼츠 소재 개발
- ◎ 저전력·고효율 제품 공급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기여
- ◎ 폐기물 저감 및 자원 재활용 프로세스 강화

S

사회책임경영

- ◎ 의료기기·메디컬 코스메틱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 협력사 및 파트너사와의 상생 경영 체계 구축
- ◎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 활동(기부, 봉사 등) 확대
- ◎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제도 강화

G

기업지배구조

- ◎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도입
- ◎ 정기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

I. 기업 현황

40년 이상 다양한 산업군에서 제품 공급을 담당해 온 전문 기업

동사는 원익QnC, 원익IPS, 원익머티리얼즈와 같이 '기업집단 원익'에 소속된 88개 계열회사 중 하나로, 적극적인 합병과 사업부문 분할을 통해 산업원자재, 조명기기, 반도체 계측장비가 포함된 통상 부문부터 헬스케어 부문, 전자부품 부문 및 그 외 기타 사업부문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유통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국내 유통 전문기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반도체용 석영용기 제조를 목적으로 1983년 10월에 설립되어, 199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1998년 의료기기, 산업용 원료, 조명 등을 영위하던 원익통상(주)을 흡수합병하였고, 2003년 11월 반도체용 석영용기 제조부문인 (주)원익퀴츠를 인적분할 하여, 현재는 4개의 사업 부문을 두고 운영 중이다. 각 사업은 통상 부문의 반도체 원료와 계측 장치 공급, 헬스케어 부문의 화장품 제조 및 유통과 의료기기 수입, HIC 등의 전자부품 부문과 부동산임대 및 농산물 유통 등의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고, 국내기업 4개사와 종속기업의 지분 100%로 된 해외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내역

(단위 : %)

종속기업	소재지	지분율(%)	업종
(주)씨엠에스랩	국내	90.8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주)하늘물빛정원	국내	100	음식숙박 및 음식료품 종합소매업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자유한회사	국내	100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장산	국내	90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및 구매업
상해신이화장품유한공사(주1)	중국	100 (종속기업 지분)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주1) (주)씨엠에스랩의 종속기업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5.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2] 동사의 주요 연혁

1983. 10	한국큐엠이 설립
1984. 04	법인전환 / 원익통상 주식회사
1997. 07	코스닥 상장
1998. 03	상공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1998. 07	상호변경 / 주식회사 원익
2010. 02	무역의 날 기념2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9. 12	(주)위닉스 합병
2020. 01	중소기업 무역부문 상공대상 수상
2023. 12	종속회사 맨텍 합병

자료: 동사 홈페이지 및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주 현황

2025년 6월 30일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유한회사 호라이즌으로, 보통주 8,429,025주를 보유하며 전체 지분의 46.3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장홍식, 양용균, 이용성, 이재천, 이규민, 고건호, 김동선, 송재형 이상 8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합 0.20%(37,183주)를 더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은 46.53%에 해당한다. 나머지 53.47%의 지분은 기타 주주가 보유 중이다.

[표 3]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유)호라이즌	8,429,025	46.33	최대주주
장홍식 외 7인	37,183	0.2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9,727,022	53.47	
합계	18,193,230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5.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매출실적

동사의 매출액은 2022년 1,080.9억 원에서 2023년 1,298.8억 원으로 약 20.2%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38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 분야는 산업원자재와 코스메틱, 의료기기로 구성된 헬스케어 통상부문과 전자부품 부문, 기타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메디컬 코스메틱의 매출은 2022년 518.5억 원에서 2023년 682.0억 원, 2024년 793.4억 원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동사의 코스메틱 사업은 종속기업인 (주)씨엠에스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피부 시술 후 처치와 관리 목적으로 병의원을 통한 안전한 처방, 외부 유해물질 차단 제품들을 선보이며 시장에 진출하였다. 코로나 이후 화장품 소비패턴의 변화, 검증된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인 메디컬 코스메틱의 진화 등 산업 환경변화에 맞춰 의료용化妆품을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개발하였고, 병원을 대상으로 한 B2B 유통에서 벗어나 온라인 및 홈쇼핑과 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비롯하여 유럽, 미주, 아시아, 브라질 등 남미시장과 상해 법인 설립을 통한 중국 시장 공략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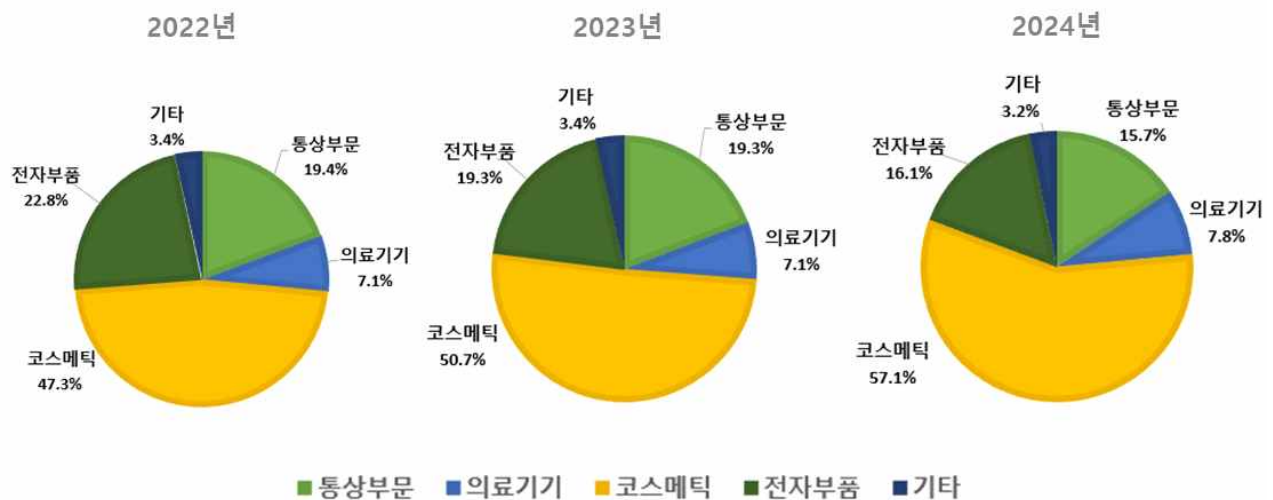
[표 4] 동사의 주요 제품 매출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사업부문	영업구분	매출유형	주요품목	매출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헬스케어 통상부문	통상	상품	산업원자재(Quartz) 반도체장비 계측 및 분석장비, 조명기기 등	수출	4.2	2.7	1.8
				내수	208.8	256.2	216.6
				소계	213.0	258.9	218.4
	메디컬 코스메틱	상품, 제품	메디컬 코스메틱 화장품 (‘Cell fusion C’ 등)	수출	141.0	148.4	179.1
				내수	377.5	533.6	614.3
				소계	518.5	682.0	793.4
전자부품 부문	의료기기	상품	외과 및 비뇨기과 수술장비 등 소모품	내수	77.7	93.4	108.2
				수출	202.3	168.0	169.8
				소계	250.5	234.3	224.1
	전자부품	상품, 제품	HIC(일반, 센서, 전장) RF Filter, GPS	내수	48.2	66.3	54.3
기타부문	레저, 기타	상품, 기타	부동산임대, 음식서비스, 원익CI 상표권	내수	37.1	45.6	44.4
내부매출 제거/ 미실현매출 인식				-	-15.9	-15.4	-1.1
합계				수출	347.5	319.1	350.7
				내수	749.3	995.1	1037.8
				기타	-15.9	-15.4	-1.1
				합계	1,080.9	1,298.8	1,387.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그림 1] 최근 3년 동사의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안정적인 수요와 급속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

동사의 사업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 메디컬 코스메틱과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 중, HIC는 다양한 산업에서 소형 고성능 부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확산과 비침습적 피부 시술 선호 증가에 따른 고기능성 화장품 수요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사는 선진국형 기술개발, 맞춤 솔루션 제공과 생산역량 강화로 인한 HIC 수출 증대 전략과 종속회사인 씨엠에스랩을 통한 B2C 메디컬 코스메틱 사업 확장 전략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 시켜 나가고 있다.

■ HIC 시장 동향

HIC(Hybrid integrated Circuits,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트랜지스터, 저항기, 커패시터 및 기타 능동/수동 소자 등 여러 전자 부품을 단일 기판(Substrate)위에 집적하는 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이런 방식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특수 기능이나 기술을 통합할 수 있어 회로의 성능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전자시스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에서 고성능, 높은 신뢰성, 소형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글로벌 Hybrid IC(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시장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소형 고성능 전자부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장화, 산업 자동화, IoT 기기 보급 확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에서 고집적 회로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신뢰성과 정밀 제어가 필수적인 항공우주, 국방 분야에서도 Hybrid I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 분석 기관인 Dataintel의 2025년 보고서 'Hybrid Integrated Circuit Marke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2032년까지 약 16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5.5%의 안정적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 글로벌 HIC 시장 규모



자료: Dataintel (Hybrid Integrated Circuit Market, 202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 동향

KBV research는 ‘Global Medical Aesthetics Market Size, Share & Industry Trends Analysis Report’ 에서 글로벌 메디컬 미용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125억 달러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화 인구 증가, 비침습적 시술 선호 확산, 피부미용 및 안티에이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은 2021년 약 12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0.4%(CAGR)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약 311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은 높은 인구 밀도와 K-뷰티, J-뷰티 등의 글로벌 확산 효과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솔루션과 맞춤형 피부개선 시술 수요가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글로벌 메디컬 미용 시장은 미용의료 기술 발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그리고 디지털 기반 커머스 환경 확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의 경우, 고도로 발달한 K-뷰티 산업과 의료관광 수요, 그리고 비침습 시술에 대한 높은 수용도로 인해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서울은 전 세계 미용 의료 관광객의 주요 환자 유치 도시 중 하나이다. Amazone advisory&Intelligence의 ‘South Korea Medical Aesthetics Market - Focused Insights 2024-2029’ 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규모는 약 5.7억 달러(USD)로 추산되며,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 비침습적 미용 시술 선호 증가,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에 힘입은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시장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12.3%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9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불과 6년 만에 시장 규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으로, 메디컬 코스메틱 분야의 고성장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국내 피부과·성형외과 기반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B2C 유통채널 다각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을 통한 시장 확대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 국내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 규모



[그림 4] 글로벌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 규모



자료: Amazone Advisory&Intelligence (South Korea Medical Aesthetics Market - Focused Insights 2024-2029),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자료: KBV research (Global Medical Aesthetics Market Size, Share & Industry Trends Analysis Report, 2023 - 2030),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HIC부터 메디컬 코스메틱과 의료기기까지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확보

동사는 여러 산업의 상품 및 제품, 부품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맞춤 솔루션 개발, 생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영업분야를 4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각각은 산업원자재(석영유리), 조명 기기와 반도체 계측장비 등을 유통하는 통상 부분과 메디컬 코스메틱 화장품 생산과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헬스케어 부분, Hybrid Integrated Circuit(HIC)를 위탁생산하는 전자부품 부분과 기타 음식서비스 및 숙박업, 부동산임대와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기타 사업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사는 각 부문에서의 기술 내재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HIC기반 차세대 고성능 센서 시장 진출

HIC는 자동차, 산업기기,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며, 전력 효율 및 회로 집적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사는 HIC를 중심으로 전자부품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매출의 90%이상이 HIC 관련 매출로, 저압 압력센서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IC, 압력센서, RF Filter, GPS 모듈 등 고정밀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저압 및 고압 압력센서 부문에서는 차세대 스마트기기, IoT, 자동화설비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소형화 및 고정밀 측정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반 유량 센서 개발도 R&D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자부품 기술 트렌드는 MEMS(초소형 전자기계시스템) 기술 기반의 초소형, 디지털화, 저전력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동사 역시 디지털 타입 압력센서, 저전류형 디지털 압력센서, 고압용 Ceramic Pressure Sensor 등 다양한 차세대 센서 개발을 완료하였다. 글로벌 센서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저압 압력센서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자율주행차량,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동사는 MEMS 기반 고정밀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응용 분야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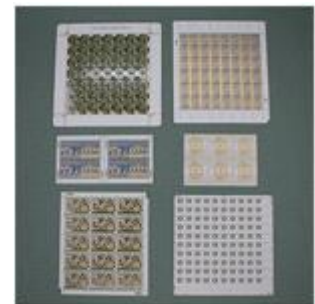
[그림 5] 동사의 대표 HIC 제품군



Voltage Regulator



Pressure Sensor



HIC assembly

자료: 동사 홈페이지

■ 메디컬 코스메틱 사업의 유통채널 확대

동사의 메디컬 코스메틱 사업은 중속 기업인 (주)씨엠에스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Cell fusion C', 'suiskin' 등의 브랜드로 대표되며, 주로 피부과와 병·의원을 통해 유통되는 더마 메디컬 코스메틱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스테디셀러인 레이저 썬스크린100을 필두로, 에센스, 크림, 클렌징, 마스크팩 등의 스킨케어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 유통 채널은 국내 3,000여 개 병·의원, 면세점, H&B스토어, 온라인몰 등 약 1,400개에 달하는 국내 유통망과 더불어 전 세계 27개국, 11,000개 이상의 글로벌 유통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B2B 병의원 중심 유통에서 벗어나 일반 소비자 대상 B2C 시장으로 확대를 꾀하며, 홈쇼핑 및 온라인 플랫폼 비중을 높이고 있다.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K-뷰티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은 동사가 메디컬 코스메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메디컬 코스메틱 사업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서 브랜드 파워, 제품 신뢰도, 품질경쟁력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맞춰 R&D 센터를 통한 기능성 원료 개발, 피부과 임상시험 기반 제품 고도화 등의 기술적 차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6] 동사의 메디컬 코스메틱 브랜드



자료: (주)씨엠에스랩 홈페이지

■ 반도체 소재의 가공 기술 확보와 의료기기 유통망 확장

동사는 외과 및 비뇨기과 수술장비 및 소모품과 수술용 레이저 및 진단 장비 등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HOLEP(전립선 비대증 레이저 시술) 장비로 사용되는 Holmium Laser를 국내 주요 병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KARL STORZ사의 복강경 수술용 의료기기를 국내 대형병원 및 검진센터에 공급하고 있으며,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필요한 실리콘재질의 카테터(BARD CIC) 등도 취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자재인 퀴즈와 반도체 계측장비, 가스 분석 장치 및 조명기기의 유통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의 단순 유통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반도체 부품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일환으로 반도체 장비용 메탈 히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규 반도체 소재·부품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 PEST 분석

동사의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및 첨단소재 산업 육성 정책이 동사에게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국산화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동사와 같은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공급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고, 글로벌 무역 환경 역시 중요한 변수로, 미중 무역 분쟁이나 관세 협상과 같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민한 사업적, 기술적 전략 등이 요구된다.

경제적 환경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이 동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사는 원익IPS, 원익QnC 등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계열사를 통해 반도체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실적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나 환율 변동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변수는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동사가 운영하는 헬스케어·화장품 부문은 내수 소비와 해외 수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웰빙 트렌드 확산이 있으며, 이는 동사의 의료장비 및 헬스케어 제품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K-뷰티(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와 피부과 연계형 고기능성 화장품 시장 성장도 동사에게 중요한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ESG 경영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미세공정(3나노, 2나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고순도 쿼츠(Quartz) 가공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동사는 원익QnC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용 석영유리(Quartz Glass)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광학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헬스케어 및 화장품 부문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솔루션과 같은 신기술 도입이 원익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동사는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책 수혜와 시장 확장이라는 기회 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변동성과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도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림 7] 동사 산업의 PEST 분석

➤ Political (정치)

-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정부지원정책
- K-뷰티, K의료기기수출 지원정책 강화
- 무역갈등, 관세협상리스크

➤ Economic (경제)

- 글로벌 쿼츠 시장 성장
- 국내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 확대
-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및 공급망 리스크

➤ Social (사회)

- 고령화 사회 및 웰빙 트렌드 강화
- 친환경, 저전력, 고정밀 소재 수요 증대
- ESG 경영 대응 필요성 확대

➤ Technological (기술)

- HIC의 제품개발 및 기술력 제고
- 선진국형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제공
- 메디컬 코스메틱 R&D 및 디지털 마케팅



IV. 재무분석

헬스케어(코스메틱, 의료기기) 부문 기반의 안정적 성장

동사의 매출액은 3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핵심요인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코스메틱의 국내외 매출 확대와 의료기기의 판매 증가였다. 2024년 영업이익은 마케팅 및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판매비와관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25.4%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수익으로 인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핵심 재무지표는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견지하고 있다.

■ 헬스케어 부문(의료기기, 코스메틱)이 매출 성장 견인

동사의 3년간 매출액은 2022년 1,080.9억 원, 2023년 1,298.8억 원, 2024년 1,387.4억 원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매출 성장에는 코스메틱의 국내외 판매 확대와 의료기기 판매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사의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주)씨엠에스랩’, ‘(주)하늘물빛정원’, ‘상해신이화장품유한공사’를 포함한 총 5개사가 있으며, 이 중 ‘(주)씨엠에스랩’과 ‘상해신이화장품유한공사’를 통해 코스메틱 사업을, ‘(주)하늘물빛정원’을 통해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부문은 통상, 코스메틱, 의료기기, 전자부품, 기타 부문으로 구분된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통상부문 매출은 2024년 기준 15.7%를 차지하며, 2022년 213.0억 원, 2023년 259.0억 원, 2024년 218.4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전기 대비 15.7% 감소했으나, 꾸준한 반도체 원자재 판매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였다. 의료기기 매출은 2024년 기준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2022년 77.7억 원, 2023년 93.3억 원, 2024년 108.2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코스메틱은 매출 비중이 57.2%로 가장 크며, 수출과 면세점 판매 확대에 힘입어 2022년 518.4억 원, 2023년 682.0억 원, 2024년 793.3억 원으로 성장하였다. 전자부품 부문은 수출비중이 높으며 2022년 235.7억 원, 2023년 220.0억 원, 2024년 224.1억 원으로,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다. 기타 부문은 레저, 부동산 임대 및 상표권 사용료 수익으로 구성되며, 2022년 36.1억 원, 2023년 44.5억 원, 2024년 43.4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5년 반기 매출액은 804.8억 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 원)대비 6.8% 상승했다. 헬스케어 부문 (의료기기, 코스메틱) 중심의 매출 구조와 글로벌 유통망 확대 전략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동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2022년 74.1억 원, 2023년 124.9억 원, 2024년 93.2억 원으로 변동을 보였다. 2024년에는 판관비율이 전기 39.7%에서 42.6%로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5.4% 감소했다. 특히 매출 증가에 따라 관련 마케팅비 및 수수료 부담이 늘었는데, 광고선전비가 116.4억 원으로 전기(89.6억 원) 대비 29.9% 늘었으며, 판매수수료는 173.0억 원으로 전기(138.7억 원)대비 24.7% 증가하였다. 또한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판관비에 계상된 경상연구개발비 역시 2022년 7.3억 원, 2023년 12.1억 원, 2024년 12.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383.1억 원, 2023년 당기순손실 13.8억 원, 2024년 213.9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3년 적자는 반도체 산업 침체 및 투자 경기 악화로 인한 ‘(주)원익홀딩스(지분율 30.3%)’의 지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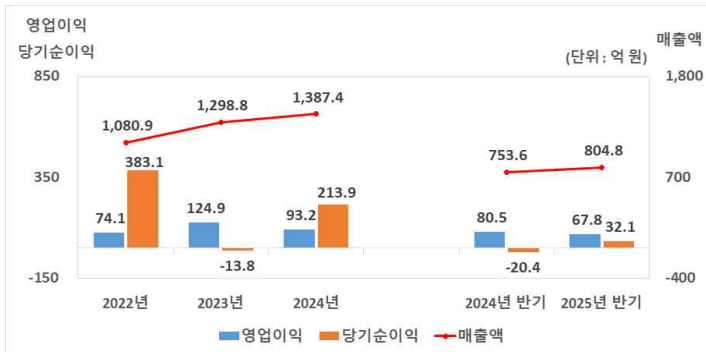
평가손실(76.7억 원)의 영향이 컸다. 2024년의 경우에도 관계기업투자소실이 145.0억 원 발생하였으나,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금인 이연법인세부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법인세수익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환급으로 최종적으로 281.2억 원의 법인세수익이 반영되어 흑자 전환 할 수 있었다.

2025년 반기에는 영업이익 67.8억 원, 당기순이익 32.1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수익성 변동을 겪었으나,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판관비 효율화, 연구개발 투자 지속으로 향후 수익성 안정화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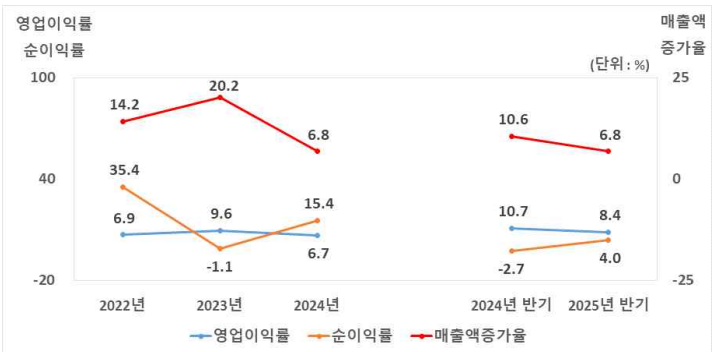
[그림 8]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반기보고서(2025.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안정적인 부채비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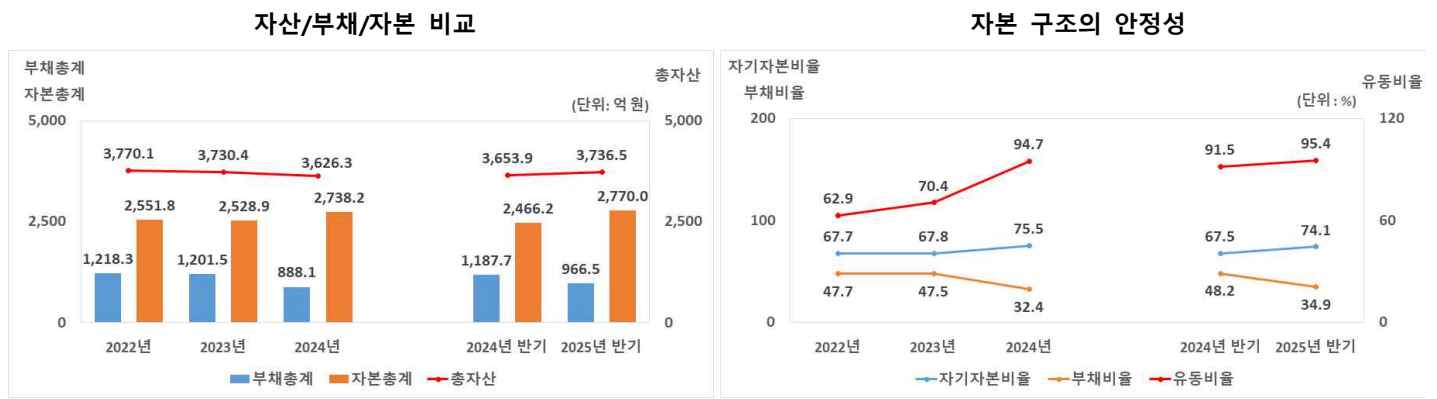
동사의 부채비율은 2022년 47.7%, 2023년 47.5%, 2024년 32.4%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채총계는 2022년 1,218.2억 원, 2023년 1,201.5억 원, 2024년 888.1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이연법인세부채가 2023년 561.5억 원에서 2024년 289.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부채비율 하락에 기여하였다. 단기차입금 금액 역시 2023년 492.8억 원에서 2024년 232.1억 원으로 감소하여 부채비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장기차입금의 경우 2023년 기준 잔액이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되어 없었으나, 2024년 신규차입으로 124.6억 원 발생했다. 다만, 동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4년 9.0%로 전기 대비 4.0%p 낮아져 양호한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2년 62.9%, 2023년 70.4%, 2024년 94.7%로 개선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유동부채 총계가 629.9억 원에서 451.5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유동비율이 향상될 수 있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2년 40.0억 원, 2023년 79.2억 원, 2024년 97.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단기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2022년 67.7%, 2023년 67.8%, 2024년 75.5%로 증가하였는데, 당기순이익을 통한 이익잉여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한편 2025년도 반기에는 유동비율 95.4%, 부채비율 34.9%, 자기자본비율 74.1%로 핵심 재무지표 모두 전년 동기(유동비율 91.5%, 부채비율 48.2%, 자기자본비율 67.5%)에 비하여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사의 재무구조는 양호한 수준이며, 낮은 부채비율을 바탕으로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반기보고서(2025.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반기	2025년 반기
매출액	1,080.9	1,298.8	1,387.4	753.6	804.8
매출액증가율(%)	14.2	20.2	6.8	10.6	6.8
영업이익	74.1	124.9	93.2	80.5	67.8
영업이익률(%)	6.9	9.6	6.7	10.7	8.4
순이익	383.1	-13.8	213.9	-20.4	32.1
순이익률(%)	35.4	-1.1	15.4	-2.7	4.0
부채총계	1,218.3	1,201.5	888.1	1,187.7	966.5
자본총계	2,551.8	2,528.9	2,738.2	2,466.2	2,770.0
총자산	3,770.1	3,730.4	3,626.3	3,653.9	3,736.5
유동비율(%)	62.9	70.4	94.7	91.5	95.4
부채비율(%)	47.7	47.5	32.4	48.2	34.9
자기자본비율(%)	67.7	67.8	75.5	67.5	74.1
영업현금흐름	-30.6	99.3	100.0	39.3	5.3
투자현금흐름	-168.1	-7.0	-33.2	9.9	-86.1
재무현금흐름	182.6	-52.9	-51.2	-47.9	16.2
기말현금	40.0	79.2	97.0	80.6	31.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반기보고서(2025.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2025년 실적은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경기회복과 기술 고도화 및 국내·외 유통망 확대 등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이 2022년 1,080.9억 원에서 2025년 1,557.3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상 부문 실적은 2022년 213.0억 원에서 2023년 259.0억 원, 2024년 218.4억 원으로 변동성을 보였으나, 퀵즈 등의 산업원자재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단순 유통에서 벗어난 1차 가공 산업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노력에 따라 2025년 23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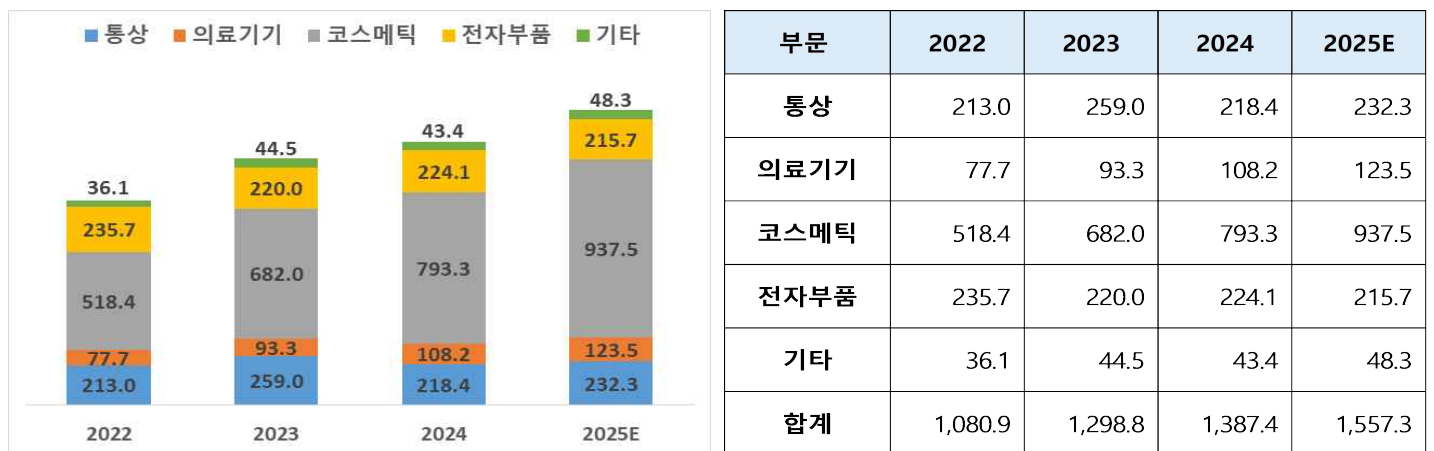
헬스케어 부문은, 의료기기의 경우 2022년 77.7억 원, 2023년 93.3억 원, 2024년 108.2억 원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기술의 발달과 의료기기 수요 증가와 함께, 환자의 불편 완화 및 회복기간 단축 가능성이 보고된 의료기기를 발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주요 공급처로 대형병원 확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풀이되며, 추후 각종 국내외 전시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의료장비 시장의 흐름 파악을 통해 신기술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데모사용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2025년에는 123.5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스메틱은 2022년 518.4억 원, 2023년 682.0억 원, 2024년 793.3억 원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고령 인구 증가로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피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K-뷰티의 글로벌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어 글로벌 유통망 확대 등에 힘입어 2025년에 937.5억 원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10]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03), 반기보고서(2025.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한 고성능 부품 양산화와 다변화 된 글로벌 유통망 확보

향후 반도체 산업은 전자부품의 소형화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당사는 원자재인 웨이퍼 등의 단순 유통망에서 벗어나 1차 가공 사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회로 집적화에 필수적인 MEMS 압력 센서 개발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내재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업 분야의 기술적 수요 증가에 따른 R&D를 통한 역량 강화

통상 사업 시장은 최근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고순도 웨이퍼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웨이퍼 웨이퍼, 튜브, 보트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당사는 기존의 단순 원자재 유통에서 벗어나 계열사와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1차 가공 산업으로의 산업 영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합성 도가니, 웨이퍼 Tube와 Rod, Ingot의 공급을 시작으로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자부품 분야의 경우, 현재 압력센서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반도체 기술 및 MEMS의 발전에 힘입어 초소형화 디지털화 저전력화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일체형의 단일칩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디지털 타입 압력센서, 저전류 타입 디지털 압력센서, 고정도 압력센서 등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첨단 의료용, 산업용 주요 부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 안정적인 성장과 첨단 산업 시장 확보의 미래 전략 추구

코스메틱 분야에서는 국내외 유통채널 확대와 고기능성 제품군의 지속적인 출시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해외 진출 및 로컬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실적을 견인할 것이며, 의료기기 분야는 최신 동향을 주시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급망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으로 매출 성장의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 센서인 디지털 압력센서, 저압 압력센서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출 실적의 회복을 노릴 것이며, 특히 MEMS 기술 기반의 센서 개발을 통해, 첨단 의료 및 산업용 부품 등 신규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한편, 전사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 공급망 안정화, 수출 중심 사업 확대 등에 맞춰 관세 등의 외부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 및 계열사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사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함께 신규 고성장 분야로의 기술 확장을 병행하며 종합소재·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투자의견 예시(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한국거래소(KRX)



자료: 네이버증권(2025.08.1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원익	○	X	X

* 2025년 06월 16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음.